유명무실한 교육지표

특별기고

우리학교 특수대학원 운영의 문제점

이 글은 신문방송대학원 연구 과정 1기에 재학중인 차병홍 동문이 우리학교 특수대학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으로 신방대학원의 교육체계가 발전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註〉

경희대학교는 4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이지 결코 40여년 만에 국내 굴지의 혹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학의 역사를 1백년으로 볼 때 3분의 1은 외적 성장기, 3분의 1은 내실기, 3분의 1은 사회에 대한 기여기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경희는 명문으로 일컬어지는 몇몇 대학에 비해 외형적으로 어느정도 비슷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제는 외적 성장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끊임없이 홍보 하여 젊고 패기있는 가능성 있는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야 할 때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학교 특수대학원의 운영이 다른 대학에 비해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려고 한다. 필자가 학생으로 있는 신방대학원의 연구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겠으나, 여타의 특수대학원도 별반 큰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신방대학원의 설립취지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바라보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은 바람직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지표의 머리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과 재교육 이념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적 의미에서 신방대학원의 교육체계는 맹목적이란 표현 밖에 할 수 없다.

현재의 신방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인을 양성한다고 하는 원칙론적 목적에 충실하여 연구과정만이 지닌 교육적 특성을 상실한 채, 일반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이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은 학생대로 소속감 결여로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능동적 학습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

특수대학원의 학생은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위와 학문연구를 필요로 하는 일반석사과정과 학위보다는 특수대학원이라는 틀에서 사회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있는 여러 인사들과의 교류·교감을 통해 일반여론을 수렴하고 교양·지식을 쌓고자 하는 연구 과정이 그것이다.

교육의 질과 형식은 목적의 식과 밀접하게 연관하여 설정되므로 허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따르는 강의의 형식과 내용은 결코 동일할 수 없으며 동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의 신방대학원은 석사 과정과 연구과정이 혼합 편성되어 두 과정의 각기 다른 특성을 살려 내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 과정 사이의 평균 연령차이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과정의 설치목적 자체가 모호하다. 그러므로 연구과정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없이 개인의 능동적인 자세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학교가 아니라 재수생들의 입시학원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다.

비슷한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모대학의 경우 결석을 하게 되면 대학원 교무과에서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결석한 날의 수업 개요에 대해, 그리고 향후의 특강이라든지 학사일정에 대해 안내를 하고 꼭 참석해 달라는 권유를 한다.

뒤늦게 향학열을 불태우는 사람들에게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없이 개인의 능동적인 자세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학교가 아니라 재수생들의 입시학원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 홍보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동문들을 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국회사무처에서 발행되는 '국회수첩'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약력이 수록되는데 국회의원 열명 중에 아홉명은 특수대학원 수료 또는 출연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우리학교의 특수대학원을 졸업한 의원은 쉽게 찾아 보기 힘들다.

'국가'에도 경영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이때 대학도 '영업'이 없이는 성장하기 힘들다. 지금은 각대학의 운영 특징을 수집·연구하고 그 중 좋은 것들을 도입하여 전혀 다른 경희만의 교육체계를 실험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을 두는 것은 좋으나 별도의 반편성을 통한 특성화 방안이 없이 다른학교에서 하니까 우리 역시 명칭만아라도 유지하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차 명 홍
〈동문·국문 16회〉

석사·연구과정 동일시해 교육특성 상실
수업결석 방치하는 등 무관심 심각
경영 개념 도입하는 과감한 개혁 필요

일반 석사 과정과 달리 수업 태도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연구과정이기에 한 두번의 결석은 지속적인 결석을 유도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대학원측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러한 수업결석을 방치 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자제품을 하나 구입해도 애프터서비스가 있기 마련인데 현재의 신방대학원은 운영자체가 학생들에게 너무 무관심하다. 합격 이후 등록까지, 등록 이후 개강까지 학생에게 통지된 우편물은 2종이다. 하나는 등록금 고지서, 하나는 수강신청서이다. 합격증에는 합격자의 이름에 오자가 나는 경우까지 있으니 문제는 심각하다. 개강이후에도 학생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하다. 학생들의 결석에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뒷북에 이야기한다면 모대학의 경우는 연구과정을 위한 별도의 세미나실을 만들어 학교·교수·학생들이 서로간에 친목을 다지고 수업이외에 학생들로 부터 학교발전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든가 보다 사회적으로 우수하고 뛰어난 인사들을 학교에 영입하고자 하는등 별도의 노력을 한다고 한다. 학교측의 그러한 관심이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교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이다.

특수대학원을 찾는 사람은 모교 출신은 물론 타학교 출신도 많으며, 연구과정의 경우는 어려운 시기에 짧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거나 사회 활동에 필요한 신분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을 지닌 사람등 실로 다양하다.

특수대학원의 설립목적을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는 고학력의 전문인 양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수대학원의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의 동문을 확보하여, 그들의 관심과 경륜이 학교의 발전과 결부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때문에, 대학원생들에게 경험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록 특수대학원생이지만 그들이 소정의 교육기간을 마치면 경희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동문들을 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국회사무처에서 발행되는 '국회수첩'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약력이 수록되는데 국회의원 열명 중에 아홉명은 특수대학원 수료 또는 출연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우리학교의 특수대학원을 졸업한 의원은 쉽게 찾아 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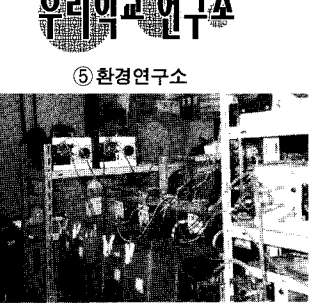
'국가'에도 경영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이때 대학도 '영업'이 없이는 성장하기 힘들다. 지금은 각대학의 운영 특징을 수집·연구하고 그 중 좋은 것들을 도입하여 전혀 다른 경희만의 교육체계를 실험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석사과정과 연구과정을 두는 것은 좋으나 별도의 반편성을 통한 특성화 방안이 없이 다른학교에서 하니까 우리 역시 명칭만아라도 유지하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차 명 홍
〈동문·국문 16회〉

우리학교 연구소

⑤환경연구소



지구는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류의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은 이런 환경문제로부터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학교 환경연구소(소장 황규대 환경학과 교수)는 공업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81년 설립되었다.

환경연구소는 생활 및 생태 분야, 수질오염, 대기오염 분야, 폐기물 및 재활용 분야 등 모두 8개 연구부로 나뉘어 제반 환경과학분야와 이와 연계된 기초연구, 관계기관의 연구수탁 및 자문, 연구발표, 강연회개최 및 출판물 간행을 통한 환경지식의 보급 및 계몽 등의 사업을 적극 관장하고 있다.

또한 매년 '환경연구논문집'을 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 오폐수 처리장 진단', '우리나라 대하천 본류의 하천유량과 수질의 상관특성 검토' 등의 외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반월염색산업협동조합의 의뢰를 받아 '반월염색단지 공동폐수처리장 활성오니(산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방법의 하나)의 최적화를 위한 학술연구'를 끝마쳤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폐수에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PVA(Polyvinyl Alcohol), CMC(Carboxy Methyl Cellulose), 유기정련제 등의 난분해성 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활성오니 공정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섬유가공산업의 폐수처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공동폐수 처리장 원폐수의 정량적인 분석 및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영양물질 밸런스 평가, PVC를 이용한 유기물 및 색도제거의 효율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지난해 3월에는 '제2회 아시아-태평양 NGOs(비정부기구)환경회의'를 주관했다. 해외 16개국 24개소와 국내 2백개소의 연구기관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김정현(환경학)교수가 '환경보전과 시민운동'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가간에 있어서 각국이 환경문제는 뒷전으로 한 채 지구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점, 후세대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받을 악영향보다는 현재의 이익을 더 생각한다는 점 등을 지구환경문제의 특징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아태지역의 민간환경단체들이 환경정책의 구상과 집행과정의 감시자로서 또 환경관리 정보의 전달매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자고 견의하는 등 환경연구소는 이제 명실공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적 주체로 발돋음 하고 있다. 〈배종근 記者〉

제반 환경문제 연구·대책마련 위해 설립
지구오염 해결 위한 중심적 역할 기대돼

세시봉

'빛 좋은 개살구'

올해는 서울 정도 6백주년을 기념해 지정한 '한국방문의 해'이다. 조선왕조의 수도를 한양땅에 정한지 6백년째 되는 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기념하여 개최될 다양한 문화행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독창적인 우리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한편으로 이익도 챙기자는 일거양득의 재치가 돋보이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한국방문의 해가 반년이 지나도록 관광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다거나 관광객 유치에 대한 민폐없는 계획과 활기찬 움직임의 기운은 전혀 느낄 수 없다. 오히려 언론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듯이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시 짚어보는 우리 관광산업의 제도상 헛점과 부실한 행정만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이미 여러번 이야기 된 바 있는 관광객에 대한 불친절과 바가지 상혼이 하루아침에 고쳐질리는 만무하다고 하더라도 한국방문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건 올해에 한국관광공사에 신고된 관광객들의 불친절 경험 사례가 3배나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이러한 순조롭지 못한 결과에 대하여 많은 원인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방문의 해'를 거냥한 많은 사업계획과 실행이 주제없이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념탑 및 현수막 제작 등의 작은 사업에서조차 허가를 내주는 관청과 대금을 결제하는 부서가 달라 일의 진척을 보기가 어렵고 이를 설치할 관

할구청과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은 산 넘어 산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 사안에서 조차 이런 형편이니 일은 어렵기 마련이고 나아가 국민의 친절 의식 고양을 바라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올해는 문화부가 선정한 '국악의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악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대중이 흥에 겨워 동참할 수 있는 행사는 몇되지 않고 많은 사건들에 가려졌던 탓인지 그 조직위원회의 활동 또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가 국악의 해로 선정되었다고 발표되었을 때 국악을 아끼는 많은 국민이 국악 부흥이 실현될 것임을 얼마나 기대하였던가. 그러나 그 기대는 반년이 지나간 현 시점에서 또한번의 헛된 희망이었다는 실망감으로 기울고 있다.

구호와 슬로건만 거창하게 내세울 뿐 실속이 없는 행정과 제도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한국방문의 해'와 '국악의 해'의 선정과 추진상황을 볼 때 과연 이러한 거창한 행사가 사전에 준비작업이 나 제대로 되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지경이다.

어떤 일이든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고 이를 통해 더욱 수준 높은 행사를 추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착오가 착오로만 그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회초리가 자주 닿은 자리는 감각이 굳어지게 마련이다. 만성적 착오가 정착됨은 생사의 기로가 멀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미 너무도 많이 보아온 시행착오의 반복을 부디 더이상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경화 記者〉

학술단신

경영시스템(연) 특강
컴퓨터교재 자체 제작

방학중 일부동아리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하는 특강을 통하여 동아리내에 국한된 활동범위를 확대한다.

제9차 컴퓨터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경영시스템연구회(ABS)의 경우 주5회에 걸쳐 1백4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90년 여름부터 한해에 두차례씩 특강을 개설해 온 ABS는 특강 한달전부터 전반적인 준비에 들어가며 해마다 새 프로그램을 추가·보완하여 교재를 자체 제작한다.

올해 세번째 특강을 준비한 회장 박기범(경영·2)군은 '학교와 전산실 사용료 합의, 홍보물 제작, 강의 계획 등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이런 사회경험을 통하여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절감했다'고 밝힌다.

또 특강을 직접 하면서 '자기가 컴퓨터를 만지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자신이 모르는 부분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인간적인 기쁨을 느낀다'고 피력한다.

그러나 이런 동아리 특강이 모두 호응을 얻는 것은 아니다. 동아리자체의 특색과 학생들의 요구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ABS의 경우 일반 컴퓨터학원에 없는 소프트요원이 상존하는 한편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도스부분은 강의를 못들은 학생에게 보충해 주는 등 나름대로의 철저한 준비가 밑받침되어 있다.

평복, 논문현상공모
전국대학(원)생 대상

우리학교 평화복지대학원은 8월20일까지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에 대한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를 실시한다.

이 논문현상모집은 특수대학원을 포함한 전국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주제는 '도덕성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실천적 방안'과 관련되어야 하며 원고지 70~80매, A4용지 15매 분량이다.

시상은 최우수작 한편에 상장 및 상금 1백만원, 우수작 두편에는 상장 및 상금 각 70만원, 가작 두편에 50만원이 지급되며 시상식과 토론회는 9월15일 오후2시 평화복지대학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961-0201】

병역의무 이행과정 문답풀이 안내

병역의무 관계법령등 관계규정이 확대, 완화, 신설되는등 제도개선된 사항과 학생들의 병무상담 빈도가 많은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문답풀이 안내합니다.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각종 보도를 통한 홍보를 하고 징병검사를 받을때나 대학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할애 받아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설명하고 또는 대학 이등병무상담소를 운영하여 대학생들의 학구생활과 관련된 병역문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관계규정을 잘 몰라서 병무청을 직접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보고 안타까와 할때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입영을 하기위해 휴학을 했는데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곤란하다던지 지 사정 변경으로 휴학 또는 입영연을 취소하고 졸업때까지 입영연기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몰라 고심하는 학생등 병역의무 이행과정과 관련이 많습니다.

문 : 대학재학생 입영연기와 대학 재학도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구체적 절차는?

-경병검사 결과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입영대상자는 2년제 22세, 3년제 23세, 4년제 24세, 6년제 26세, 대학원 2년제 26세, 5·6학기제 27세가 되는 해에 본인이 가능한 사람을 입영연기 하고, 대학 재학도중 입영을 희망 경우 가까운 시, 도 제반 병무청이나 본적지 또는 거주지 구, 시, 읍, 면, 동에 입영희망서기를 기재한 입영희망원을 제출하면 가능한 본인의 원하는 시기에 입영조치 합니다.

다만, 그시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입영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영 희망자 접수순에 따른 사람들로부터 입영하므로 3~4개월 이전 가능한 빨리 출원하면 유리합니다. 입영하기 위해 휴학한 경우에는 입영연 출원자들 우선하여 입영 시기도록 규정되어 있고 희망시기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 입영하기 위해 입영희망원을 출원 하였거나 휴학시가 다시 복학하여 재학생 입영연기를 받을수 있는 절차는?

-입영희망원 출원시는 재학증명서등, 휴학자는 복학증명서등 첨부하여 입영일 5일 전까지 취소원을 입영통지서 지참병무청장에 제출하면 24세까지 중입이 가능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연기 처분 합니다.

문 : '94년 징병검사시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현역처분 대상은 대학·고졸자로 신체등위 1급~4급자와 고퇴1급자이며 O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처분 대상은 고등학교 중퇴자로 신체등위 2급~4급자와 중졸 1급~4급자입니다. 제2국민역(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면제)은 중학 중퇴이하자, 2년이상 수형자(형기 합산 2년이상자 포함), 1년이상 형 선고자로서 27세 이상인자(단, 6년제 대학의 5년째 이상자 또는 대학의 재학중인자는 제외한), 고아·귀화자·외관상 명백한 혼혈아·신체등위 7급사유 1년 초과자

문 : '75년생부터 독자보충역 방위소집 제도가 폐지되는데 '74년 이전 출생자의 복무는?

-'72년 이전 출생자는 6개월, '73·'74년 출생자는 18개월을 방위소집 복무하고 '75년 이후 출생자는 독자보충역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전공·우직한 군인 및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전·공상군인의 형제 또는 아들중 1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복무합니다.

문 : 금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입영하는 시기와 입영일자 결정 방법은?

-금년 징병검사를 받은 자는 95년 1월이후부터 입영합니다. 입영일자 결정은 징병검사실 발표때 작성하는 신상신술서에 원하는 입영희망시기를 명시해도록 되어 있고, 신체등위, 입영희망시기, 학력, 전공하는 학과, 자격등을 고려하여 12월경에 입영부대와 입영일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결정된 입영부대와 입자는 연서로 본인에게 통보하여 드리고 입영 명령서는 입영일 45일전에 받음되어서 늦어도 입영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단, 실시(19세)에 입영을 위하는 자는 금년에 입영이 가능합니다.

문 : 산업기능요원의 신설된 내용은?

-농·어촌 인력부족난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를 비롯하여 위탁 영농회사의 농업기계 운전요원, 농업기계 사후봉사업 종사자등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이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감독을 받아 근무한다. 또한 농한기의 경우, 농·어민 후계자는 농외소득사업에 농기계 운전요원은 소속업체의 설립목적의 수행을 위해 종사하는 것도 허용한 제도이다.

문 : 산업기능요원의 확대된 분야는?

-제조업의 경우 전량·기계등 10개 업종만 대상이 되었으나 전 제조업종으로 확대(소프트웨어 산업 포함)했으며, 과거 90개 기술 자격 종목에 한정되어 있던 산업기능요원 지원 자격을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직 전종목 6에82개(서비스업 제외)로 확대 했습니다.

문 : 산업기능요원의 완화된 내용은?

-최근 연구요원들이 중·소기업 연구소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서사야상의 학위문 가진 연구요원 3인(종전5인)이상만 확보하면 연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시에 자연계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도 보충역에 한해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할수 있도록 완화하고 학력별 기술 자격 등급을 완화했습니다.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면허소지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전 등급이 되도 해당되며, 고졸이하자는 소형선박의 조종사도 포함 하도록 완화 했습니다.

학 력 별	종 전	개 정
대학(원)졸업자	기사 1급이상	기사 2급이상
전문대학 졸업자	기사 2급이상	기사 2급이상
대학3-4년 휴학, 중퇴자	기능사 1급이상	기능사 2급이상
고졸이하자 대학(전문대1-2학년)휴학, 중퇴자	기능사 2급이상(현역) 기능사보 이상(보충역)	기능사보 이상

문 : 상근 예비역의 복무대상, 복무기간, 지원절차등은?

-상근예비역 선발은 지원 또는 징집에 의하고 지원자격은 '94년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4급 현역 입영대상자와 징집은 지원 부족시 징집순서상 선체, 현역등이 낮은자 부터 역 순으로 선발하며, 총복무기간은 30개월로 현역병 12개월을 복무한 후 18개월 병역내에서 합토방위입무를 수행하고 기간을 마치면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것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전자는 징병검사를 받은자는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장에서 원서교부 및 접수하고 징병검사실 어미 받은사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시·구·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문 :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은?

-본인이 입영(소집)하면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자(징병검사 대상과 대학(원)재학생은 제외, 단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본인의 고정수입으로 생계유지자는 포함)로 아래기준 해당자. 출원서류는 징병검사를 받은자는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장에서 원서교부 및 접수하고 징병검사실 어미 받은사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시·구·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재산(가구)	재산세	재세표준액	월수입(1인당)	부양비율	부양능력자	피부양자수
		1,300만원 이하	17만원 이하		남자1인당	3인 이상
					여자1인당	2인 이상

부양능력자 구분		부양능력자	자활가능자	피부양자
	남자	20세-54세	55세-59세	그 이외의 자
	여자	20세-44세	45세-49세	〃

문 : 전산 또는 전화등으로 병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민원안내를 위하여 0331-257-2011번과 연결한 후 5555번을 누르면 자동응답, 징병검사 등 21개분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신문의는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53-2(우편번호 440-151)로 문의하면 역인까지 상세히 우편물로서의 드리며 금년 5월 1일부터는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 : PC통신을 이용한 병무민원안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수원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민원안내를 위해 5월 1일부터 PC통신(천리안 하이텔)을 이용해 전국 어디에서나 병무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입영일자는 알고 싶은 경우, PC화면에서 병무항목은 선택한후→단위업무란 입영일자안내 선택→징병검사로 받은 지방병무청(서울, 광주, 대전등)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현역병 및 방위소집등 입영일자를 알 수 있다. 또한 열린 병무마당(민원광장)을 마련 병무행정에 대한 시정사항,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등 병무행정 관련 국민의견은 직접 수집한다고 한다.

수 원 지 방 병 무 청 장